



# 미 연방정부 업무중단 사태의 원인과 영향

김세중 선임연구원

-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대립으로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이 부결되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됨.
  - 연방정부가 2014 회계연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국방과 치안 등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비핵심 업무들이 중단되고 잠정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약 80만 명의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됨.
  - 연방정부 업무중단 사태는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개혁법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해 온 공화당과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발생함.
    -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건강보험개혁법안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예산안을 세 차례 가결하였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이를 모두 거부함.
  
-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바마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0년 3월 21일 상하원을 통과한 후 3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됨.
  - 건강보험개혁법은 5,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일정소득 이상인 3,200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임.
  -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약 9,000억 달러가 투입되고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개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을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반대하였고, 법안 발효 이후에도 무력화를 시도하였음.
  - 건강보험개혁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당시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에 필요한 약 9,00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개인의 선택권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2012년 7월에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문제 삼아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지 않았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도 연방 정부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후인 2012년 11월 정부 재정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 협상에서도 공화당 측은 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 유보를 주장하면서 건강보험개혁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함.

■ 미국 연방정부 업무중단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 시한인 10월 17일까지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질 경우 세계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미국은 이미 몇 차례의 연방정부 업무중단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잘 마련되어 있고, 정치권 또한 유권자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업무중단 사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부담임.
- 그러나 현재 16조 7,000억 달러인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10월 17일 이후에도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부채한도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2011년 8월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이 지연되자 신용평가회사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루만에 5.5% 하락한 바 있음.
- 한편 연방정부 폐쇄 이후인 10월 2일 달러인덱스가 9월 30일 80.2에 비해 0.3p 하락한 79.9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임.

■ 정치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해소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업무중단 사태와 함께 이탈리아 연립정부 붕괴 가능성 등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Moody's Analytic은 미국 연방정부 폐쇄 기간이 1~2주에 그칠 경우 미국의 4/4분기 경제성장률이 0.3%p하락할 것으로, 폐쇄기간이 3~4주로 길어질 경우 1.4%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Huffington Post 등)